

標準化에 의한 컴퓨터 마인드

앨빈 토플러는 지난해 訪韓기간중 全經聯회관에서 「한국이 새로운 사회로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며 스스로의 변혁과정을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역설했다.

새로운 전략이라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컴퓨터전문가가 되란 말인가, 아니면 전략가가 되란 말인가.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열세자리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학교에 입학하면 학번을 받게되고, 군에입대하면 군번을 받으며, 직장에 입사하면 사원번호를 받게 된다. 친구를 찾으려면 전화번호요, 자동차엔 차번호, 식당에선 테이블 번호가 나를 대신해주고 백화점에 가서는 신용카드번호요, 병원에가면 의료보험카드 번호가 나를 대신해준다. 그리고보니 번호가 내 생활의 모든영역에 가득 채워져 있음을 어찌할 수 없다. 번호를 빼놓으면 나라는 존재가 표현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활의식구조에는 아직도 計數化 계량화가 불분명한 데가 많이 있음을 본다. 즉 토마토가 백원에 두서너개이고, 콩나물 1백원어치는 몇 g 이며, 두부한모는 몇 g 이고, 삶은 고기와 날고기는 한근의 g 수가 각각 달라야하며, 시골길의 시오리는 몇km 인지 헤아리기 힘들다.

김삿갓 영감님은 「去年九月 過年九月, 今年九月 過九月,



조이남

금융결제관리원 금융전산주진부장

年年九月, 過九月, 九月山光 長九月」(지난해도 九월에 九月山을 구경하고 올해도 九월에 九月山을 구경하니 해마다 九월에 九月山을 구경한다. 九月山 경치가 언제나 九월이로다)이라고 읊고 있다. 詩情에서조차 몇번이고 의식적으로 九字를 되풀이 쓰고 있다. 여기에 쓰인 숫자는 해학적인 효과이상의 無限과 有限의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조상들이 숫자의 개념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며 새로운 전략의 하나로 계량화 계수화의 표준화가 선행되었으면 한다.

본인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금융전산망구축에도 이러한 표준화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가를 새삼스럽게 느끼며 엇그제 현금자동지불기에 사용하는 카드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카드규격의 표준화작업에 착수했다.